

특화교육 ·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해법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 20%이상일 경우를 '초고령 사회'로 나누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2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들의 고령자 관련 자료를 모아 10월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2%를 차지해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노인 취업난과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문제의 현황과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과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어떤지 진단해 본다.



◇한 복지센터가 마련한 취업상담 창구에서 노인 구직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

고령인구 사회문제화... 해결방안은

◆ 급증하는 노인문제

지난 9월 13일 이모(77, 인천 부평구) 노인이 인천 동양역에서 전동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자녀들의 학대 및 시가 심해 큰 아들을 낳은 이 노인은 생활고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모(82) 노인은 요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꺼낸다. 최근 아들이 죽은 이후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려 온 박 노인은 지병인 좌골신경통과 백내장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노인문제 사례는 또 있다. '세계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가 마련한 노인복지에 일일 평균 이용인원 2천여 명보다 절반이 늘어난 3천여 명의 노인들이 몰렸다. 복지센터가 마련한 자원봉사자클럽의 취업상담 부스에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되돌아간 노인들이 대다수였다. 돈을 벌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들은 최근 공개된 국회 국정감사자료 통계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중순 의원(한나라당)이 9월 29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자살한 61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 10만명당 61.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 10만명당 27.46명 자살에 비해 무려 2.3배 정도가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또 1999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자살한 노인은 1만2557명으로 하루 평균 75명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전체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9.43%, 2000년 19.75%, 2001년 24.59%, 2002년 24.47%, 올 7월 말 현재 28.94%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생활고, 소외감, 건강악화, 자녀들의 학대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노인 취업난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노인문제, 돌파구 없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과 자활 사업 등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취업교육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에 월 평균 3백~5백 건의 구직희망이 접수되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건수는 30~40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직종도 용역,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다.

기업체들의 고령인력 기피 풍토도 개선돼야 하지만 노인들의 취업 영역 확대를 위해 창업, 베이비시터(baby-sitter, 부모 외출시 아기를 대신 돌보는 사람) 등 세분화, 전문화된 특화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복지시설들은 스펙트럼프로그램 마련 △실버 취업박람회 정기적 개최 △노인복지예산 확보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최정훈 복지2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3백인 이상 사업장은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고령자 고용촉진법도 이를 권고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불교계 노인복지 현주소

지난 9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이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현황(비인가 시설 제외)'에 따르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469개소로 불교 68개소, 개신교 185개소, 천주교 176개소, 기타 40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복지시설은 총 1백개소로 전체 복지시설의 21%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은 1백개소 중 16개소(16%)로 천주교 42개소(42%), 개신교 29개소(29%)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대다수의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원이나 노인보호시설인 것으로 파악돼 취업교육 등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노인전문복지기관의 경우도 특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복지관은 몇 곳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사찰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로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사찰이 전체 사찰의 10%에 불과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만하거나 지원하는 사찰은 20%정도이며 무료급식소운영 사찰이 16.7%,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6.6%에 불과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고령인력 기피 개선 · 고용촉진법 등 손질을 노인복지시설 100곳... 불교시설은 16곳 불과

건강악화 · 소외감 · 생활고로 하루 평균 7.5명 자살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 20%이상일 경우를 '초고령 사회'로 나누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2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들의 고령자 관련 자료를 모아 10월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2%를 차지해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돌파해 '고령 사회'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노인 취업난과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문제의 현황과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방안과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어떤지 진단해 본다.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구본희
김포 외국인노동자센터
간사

엄마의 매

20년전 사랑의 매 내삶의 자양분 스스로에 관대해질 때마다 생각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종아리에 퍼런 물이 들 정도로 어머니께 맞은 일이 있다. 내 저금통에 동전이 늘어나는 재미에, 아버지 동전 주머니 속으로 그만 내 손을 넣어버린 것이다. 그 일을 한 이유가 그리 불순(?)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난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종아리를 내리친 때를 듣고 속상해 하시던 어머니를 훑쳐보며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했었다. 그래서였는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종아리에서 느껴졌던 그 혹독한 아픔의 기억을 잊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나는 이따금씩 그때를 생각한다. 다 커버린 딸에게 더 이상 매를 두지 않는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옳지 못한 일들을 대할 때,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 남을 짓밟는 사람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도 뻔뻔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 별다른 매를 드는 사람이 없는 지금,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어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경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나의 잘못에 그다지 큰 매를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거나 아예 못 봐줘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의 그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말이다.

잘못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신성한 권리라도 부여받은 듯 '그럴 수도 있다'며 자신을 옹호하고, 끝없는 관용의 늪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그게 아니었

다고 때늦은 반성을 한다. 정말 이럴 때, 이런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고 남의 잘못을 말하기 힘들 때, 그럴 땐 이상하게도 그 옛날의 어머니의 매가 생각난다. 글을 쓰다 보니,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과연 나는 그런 혹독한 매를 달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는가? 나에게 가해지는 매를 스스로 거부하고, 피하고, 부정하며 살지는 않았던가? '믿음'이 아닌 '무관심'이 아닌 하는 이름으로 내 아픔에 갇혀 내 자신에게 대하야 할 매를 스스로 거둬들이지는 않았던가?

이런 저런 핑계로 마주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서로에게 매를 든다는 것이 큰 무리일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매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매가 쓰고 아픈 만큼 상대를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느껴야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래서 나에게 매를 드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가끔 슬퍼진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 역시 애정 어린 매를 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진다. 그것 역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선 주변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런 서러운 마음들이 달아지지 않을까?

20여년 전 어머니의 매는 참으로 때웠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그때의 어머니의 매가 30여년 동안 내 삶의 가장 풍성한 자양분이었음을 어머니도 아실까?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 성광수

-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 스포츠 키타이 2003 컷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름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제재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져서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 선정 기념, 신학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2004

대도근본 회천법으로 우주의식의 율선선이 하나로 되는 혈단법의 초염력, 크리닉 지도자 양성 경신도통 대법회

◎ 선천법도는 말로만하는 세상 사는것을 후천법도에는 말이나 글자나 형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덕으로써 마음속에 숨어있는 혈단법을 알아야 도통하여 천하도, 지구도, 재난도, 인류도 구하고 자신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는 것이다. 그 베일에 감춰진 해법을 10월 13일 14일 (음 9월 18일 19일) 자시와 오시에 대우주의 진광 초능력으로 정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 신령의 세계, 혼백의 세계, 인연의 율회로 태란습화의 모든 생명들에 의한 방어진 율명 무명 생명 연장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날이 경신일이고 해원상생 해탈시키는 기도이며 종교 지도자, 사회복지, 심리상담사, 건강상담사, 한방양방 건강크리닉 종사자, 비만크리닉 담당자 모든이들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각기능에 최고의 보수가 되는 기도를 명심할지여다.

◎ 이 기도로 도통하고 부자서 사는 길.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대를 초대하오니 인류 크리닉 스승 되소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에 자기를 알아야 대우주의식 진광으로 인류를 구하고 자기도 구하며 천기누설이란 사람의 운명인 것이며 이법은 귀신도 모르는 법도를 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재앙을 받고 나고 죽고 하늘과 땅과 인간 대우주의 비밀장인 것을 천지신명에 최를 관철되는 기도가 바로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DNA생명의 초능력으로 천안통을 얻어 건강 비만 크리닉 사명자 되는 대운을 받는 날인 것이다.

- 사람이 태어난 윤리도덕관 전생, 금생, 내생으로 수명장수로 잘 살려면 경신일문으로 탄생일의 날을 연장 하는 것이다.
 - ① 상품상생의 인연법 10개월 10주 306일 이상
 - ② 중품상생의 탄생 부모미생전 10개월, 296일
 - ③ 아품상생의 탄생 인연법 9개월, 286일 이상
 - ④ 저품상생의 탄생 인연법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혈단법 진법이란 1. 백사천서, 천부경 2. 하도천서, 지부경 3. 락사천서, 인부경 4. 무지천서, 예단 태골경을 당일 자시와 오시와 강령함니다. 미륵달라 경신도통이란 삼라만상 생명이 있는 모든 유상무상들과 조상영가님들에게는 해원상생을 시키고 수명하는 이에게는 상동천문 하달지리 동참한 이들에게는 일체 악연을 끊어주고 새로운 광명도통 병마제도의통력 급문 말문 천문 무문도통 성취한다. 인간은 누구나 들마기 될 수 있다. 천지개벽과 육신의 개벽을 그대는 이어나오 ~

유, 불, 선이 하나로 되는 달마도법이 계시던 경신일(10월 13일, 14일) 자시와 오시에 상동천문 하달지리 지각변동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후천법도를 불조의 해명으로 이어받는 달마도법으로 종교통일 세계평화통일 북극정토로 이룩하는 대운 맞이 대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니 대우주의식 초능력 일력으로 말법중생을 제도하는 크리닉 스승 되소서.

건강크리닉 비만크리닉사, 운영상담 크리닉사, 특별양성교육
▶ 1년반, 6개월반, 취업반, 사원지도반, 단전호흡이나 그 외에 3년이상 수련인자
▶ 모집대상: 남 여 관계없이 마음이 넉넉한 사명자 진인 도통군자에 한함. 여타에 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도를 구하여 천안통 혈단법 율명각 해인 법도의 뜻대로 덕을 베풀고 도인이 되고자 아시는 진인들에게 초능력으로 만인을 제도하는 크리닉 지도자 사명자 양성으로 중생들 지도할 최첨단 비법.

- ◆ 당일 후원금: 5만원(1박 2일), 침식제공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동참금)
- ◆ 온라인 접수: 농협 029-01-167866 광택일(한영) 신학순
- ◆ 김마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일요일 오후 5시) 심한광 · 양방 종사자, 특별 오운육기 특별개인지도, 풍수지리 철학상담을 제도하는 크리닉 스승 되소서.

● 일제 : 10월 13일 월요일(해시) ● 해제 : 14일 화요일(해시) 02) 821-6622 / 821-7767 ~ 8 / 016) 239-3110 1호선 노랑지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300m (버스 85, 25, 94, 72-1, 105, 26, 303, 142, 26-3, 102번) 모집원고개하차. **웅 조달마 진인 경신도통 회장 태일대사 합장 세계 불교 말마중 중흥산 교육원장 교명정영도 합장**